평동외투지역 입주기업 95% 분양 찬성

재산권 행사·투자 유치 등 어려움 호소

정부·市 오늘 2차 회의 분양전환 논의

광주 평동외국인투자지역 분양(매도) 전환〈광주일보 7월3일자 1·3면〉과 관련, 해당 입주기업 가운데 95%가 분양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평동외투지역 경영자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최근 광주 평동산단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원사무소에서 입주기업 63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동외투지역 부지매도 희망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개사가 분양 전환에 찬성했다.

분양에 반대한 업체는 3개 사에 그쳤다. 나머지 2개사 중 1곳은 이미 분양을 받았고, 또 다른 1곳은 현재 부도 상태다.

광주시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한다'는 분양 전제조건을 설명한 뒤 동의서에 찬반 여부를 날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재산권 행사 불가 ▲금융거래 불이익 ▲투자 유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분양을 강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입주기업의 100% 가까이 분양을 원하면서 27일 '평동외투 태스크포스팀 2차 회의'가 주목된다. TF팀은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분양전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평동외투지역 경영자협의회는 "입주 초기 많은 불편과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외투지역에서 기업을 시작한 것은 저렴한 임대료와 기업 편의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임대조건이 오히려 기업을 궁지에 몰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토지가 국가 소유여서 일반 기업들에 비해 대출이 30%가량 적게 이뤄지고, 대출금리는 2~3% 높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부채를 줄여 재무상태를 개선하려고 해도 외자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기업들도 분양을 호소하고 있다.

철 구조물 제작 전문업체인 (주)호수는 일본투자자로부터 30억원의 투자를 약속을 받아놓고도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경길 (주)호수 관리이사는 "부지를 매입하면 곧바로 3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일본투자자가 있다"며 "임대부지가 오히려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일부 외국투자자는 임대부지에 투자하라고 한다"며 "사기꾼 취급까지 한다"고 억울해했다.

일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입주업체 A사도 부지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다.

A사 관계자는 "일본 진출을 위해서는 공장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자가공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평동외투지역은 임대부지로 공장인증이 나지 않아 수출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부도 난 H사의 경우도 자기 땅이었다면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을텐데 임대부지로 인해 금융거래 제약으로 부도가 났다고 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민들의 메달리스트' 뽑아 주세요 현대자동차는 런던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은 실패했지만 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i30 2대와 벨로스터 터보 3대 등 차량 5대를 선물하는 '국민들의 메달리스트'를 실시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들은 다음달 9일까지 현대차 페이스북(www.facebook.com/AboutHyundai)에 감동을 준 국가대표 선수와 추천사유를 자유롭게 적어 응모하면 된다. 〈현대차 제공〉

산업계, 전기료 추가인상설에 초긴장

"최근 6.0% 올려 원가회수율 100% 넘어" 반발

이달초 단행된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연내 추가 인상설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산업계가 곤혹스러워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 등 에너지 수요가 비교적 큰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최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 고압 요금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한국전력에 원가회수율 공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추가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한국전력이 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6.0% 인상하자 산업계는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극심한 경기 위축 탓에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전기 요금을 올려받기로 한 것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산업계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휴일 중부하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요금 인상률이 7.5%에 달한다며 한전과 지경부가 밝힌 요금 인상률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홍 지경부 장관이 에너지 절약 관련 행사에서 추가 요금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홍 장관은 지난 13일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산업계 절전경영 보고대회에서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산업계는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산업용 고압 요금의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다며 한전측에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전격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계는 여기에다 최근 요금 인상으로 인해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99.3%로 높아졌고 고압용만 따지면 100%를 넘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K3' 사전계약 오늘부터 전국 영업점

기아자동차는 27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준중형 신차 'K3'의 사전계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K3'는 다음달 중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이날 K3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된 'VSM'(차세대 차체자세제어)을 비롯해 최첨단 텔레매틱스서비스 '유보(UVO) 시스템', 'LED(발광다이오드) 주간 주행등',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등 다양한 안전·편의사양도 공개했다.

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주차가능 영역을 측정하고 스티어링 휠을 자동 제어해 평행 주차를 손쉽게 도와주는 '주차조향 보조지원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휠, 앞좌석 통풍시트, 뒷좌석 에어벤트 등을 적용해 준중형급을 월등히 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기아차는 올해 'K3'를 출고받은 고객이 기아차 신차를 구매할 경우 3년까지 신차 가격의 62%를 보장하는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스'를 시행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광주 채용설명회…지방대생 채용 확대

내달 13일 서구 유·스퀘어 CGV터미널점서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13일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CGV광주터미널점에서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광주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방대생 채용 확대를 위해 이번 채용설명회부터 광주지역을 추가했다.

채용설명회는 광주에 앞서 다음달 7, 8, 10, 11일 서울 CGV청담씨네시티 기아시네마에서도 각각 진행한다.

참가자는 매회 250명씩이며,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아차 페이스북(www.facebook.com/kia.co.kr)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

기아차는 이번 행사에서 경영진과 채용팀장이 직접 회사의 비전과 다양한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채용설명회'와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기아 시네마데이'를 함께 시행해 지원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선배사원과의 상담시간을 마련해 희망 직무와 경력개발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고, 회사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밖에 최근 입사한 선배사원들의 취업성공기를 로비에 게시해 지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이며, 30일까지 기아차 페이스북(www.facebook.com/kia.co.kr)에서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21개고-지역 기업 9개사

특성화고교 취업지원 협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지난 24일 광주고용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21개 특성화고교와 지역 강소기업 9개사가 '특성화고교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는 광주공고와 전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전남여상, 호남원예고, 장성실고 등 광주·전남지역 21개 특성화고교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공장,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양유업 나주공장,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무등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들은 광주고용노동청이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업은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50여명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또 고졸예정자 취업 지원을 위한 모의면접 등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채용정보 제공, 청년채용박람회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용불량자 1년새 24% 급증

신용불량(채무불이행)이 최근 1년새 24% 급증했다. 신용도 최하위등급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가계부채와 고용의 질이 날로 악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의 바탕이라고 지적했다.

26일 개인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채무불이행) 신규발생지수'는 올해 3월 20.80으로 지난해 4월의 16.83보다 23.6% 높아졌다. 신용도 최하위등급(10등급)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경제·사회생활이 불가능해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0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27	31	34	35	43	37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599,557,860	8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68,798,188	31
3	5개 숫자 일치	1,336,306	1,596
4	4개 숫자 일치	50,000	75,460
5	3개 숫자 일치	5,000	1,234,049